

思想의 俗惡化에 抗목해야; 봄과 思索

黃郁

落葉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이 思索의 時節이라면 萬花가 方暢한 봄날도 못하지 않게 思索의 時節이다. 가을의 自然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면, 봄날의 社會도 못하지 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목을 기울이고 생각게 한다. 고요한 가을밤 寂寞한 뜰 앞에 난데없는 一點淸風이 人生에게다 무엇인가를 속삭인다면, 騷亂한 밤人거리의 꽃구경 가는 自動車 소리는 人生에게다 무엇인가를 웨친다 할 것이다. 秋風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은

閑暇한 時間과 □□한 威□을 가진 高貴한 사람들이고, 騷亂한 自動車소리에 귀를 아프게 하며, 돈을 마셔 가면서 세상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實地로 세상을 運轉하는 貧賤한 사람들일 것이다. 가을의 思索은 哲學的이면서 奧妙할것이지만 봄날의 생각은 科學的이면서 現實的인것이니, 科學的이요, 現實的인 이 點에 봄날의 思索이 特徵이 있다. 고요한 가을밤에 □然히 人生을 思索하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꽃피는 봄이 되면 歡樂, 歡樂을 뽐내기에 汲汲해야 한대의 思索조차 가지기 어려울 것이나, 歡樂의 時節이라는 봄날에조차 한푼 엇치 享樂도 갖지 못하고, 오직 勤勞, 勤勞에만 익매어 있는 사람들은 봄날에 다시 한번 세상을 고쳐 認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들은 現實的으로 經濟的으로 세상을 解釋하기를 시작하게 되고, 땀아서 科學的으로(冥想的이 아니고)세상을 解釋하게 될 것이다. 팽이를 메고 들(野)에서 □人으로 더부러 꽃노리 하는 紳士를 볼대, 젊은 農夫는

무엇을 생각할 것이며, 함마-를 들고 뜨거운 □邊에서서 달려가는 自動車를 볼대 젊은 織工은 무엇을 생각 할 것인가. 더욱이 그 農夫, 그 織工이 多少라도 思索이 있고 意識이 있는 사람일 때, 그는 果然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深遠한」 思想을 가진 哲學者, 「高尙한」 藝術을 가진 藝術家들은, 아마도 그들의 생각하는 것을 俗된것이라 하고, 값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거기서 생겨나는 思想으로 하여 思想은 俗惡化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思想은-人類의 思想은 여기서 俗化되는것이 아니요. 더욱이 惡化되는 것이 아니다. 人類의 思想은 오직 歡樂을 찾는 그 곳, 歡樂에 겨운 그곳에서 惡化하고 또 俗化한다. 왜그러냐 하면 歡樂을 追求할때 사람은 盲目的이고 歡樂에겨운 때 사람은 생각이 없어서 지고, 盲目的이고 생각이 없을 때 사람의 思想은 俗化되고 또 惡化되는 것이므로 써이다. 지금 이 봄날 時間과 經濟에 조금이라도 餘裕가 있고, 自然과 人生의 가진 享樂을 누리기 爲하야 充分한 「文化」를 가지고 잇는 사람들은 春宵一刻에 값이 千金이라 하야 오직

歡樂을 찾기에만 汲汲하지않는가, 그러므로 現在의 그들을 支配하는 것은 오직 歡樂을 追求하는 衝動뿐이요. 아무 思索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봄」과 「思索」이란 大凡因緣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다만 自然의 아름다움에 醉하며, 自己의 歡樂에 醉하야 미쳐 세상이 어떻게 되는데 눈을 뜨지 못 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들의 思想은 內容이 없어지고 깊이가 없어진다. 그들의 思索없는 봄날의 生活은 直接 그들의 思想에다 影響을줄만한 必然性을 가지고 잇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斷言한다-思想을 俗化하는 사람들은 봄날에 思索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思想의 俗惡化는 봄에만 잇지 않다. 最近에 이르러 소뿌르그 他中間層의 反動과 한 가지 모든 思想은 점점 더 俗惡化되어갈 뿐이다.(그 例로는 所□「나치스」의 哲學思想이라는 것을 엿보면 足할것이다.) 봄이 아니라도 「봄에 思索않는 사람들」에 依하야 思想은 그 歷史的 必然性에 依해서 俗化될 것은 속화되고야 말리라. 그러나 지금 봄날에 잇어서 思想이 俗惡化되는 原因이 分明히 보이느니만치 筆者는 지금 그

俗惡化를 새삼스러히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正當한 思想의 □俗化 大衆化 普及化를 極히 尊重히 여기는 反面에 正當한 思想이 俗惡化되고, 誤傳되는 것을 極히 미워한다. 이미 낡아지고 頹敗하여가는 思想이 俗惡化되는 것은 必然한 일이라고나 해버릴 것이나, 새로 일어나는 正當한 思想이 誤傳되고 俗惡化되고 그 우에 또 惡用까지 되는데 이르러서는 누구나 다 單純한 憎惡만을 느낌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굳세인 抗爭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無思索(함이 된 서울을 뒤덮는 이春節에, 우리는 더욱이 더 正當한 思想의 俗惡化를 미워하고 그것에 抗爭하고 싶어진다.

각자가 專門하는 方面에 對해서도 오히려 學者的 研究가 缺乏되어잇는 現在의 조선 事情에 잇어 서는 모든 思想-더욱이 一般的 哲學上的 思想이 俗化惡化되는 例는 적다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그 中에서도 우리가 참기

힘든 것은 反動的인 時期와 自己의 地位를 利用하여 하기고

大衆의 利益을 擁護하는 正當한 思想를 故意로 (또는 無知에 依하여) 俗化惡化시켜가지고 그것을 惡用하는 境遇이다. 또 만일 그것이 한두 個人에 고친다면 구태어 들어 말할 것도 없겠지만, 一般을 迷惑시킬 危險性이 잇을 때는 抗爭않을 수 없나니, 筆者는 다음 한 두가지 哲學上 問題에 對하여 抗議 또는 辨明을 시험하여 보려 한다.